

이혜리 “미쓰리 연기하며 직장인 고충 이해”



이혜리



중소기업의 뼈아픈 현실을 그려내 주목받는 tvN 수목극 ‘청일전자 미쓰리’의 해로인 배우 겸 가수 이혜리(25)가 이번 작품을 통해 직장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 말단 경리에서 망하기 직전의 청일전자 대표이사사가 되는 ‘미쓰리’ 이선심을 연기 중이다.

이혜리는 14일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청일전자 미쓰리’ 기자회견에서 “늘 품 안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그런 기분을 알게 됐다”며 “하루하루 버티고 이겨내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계속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생각보다 많았다. 다 다른 감정으로 연기했다”며 “선심의 리더십은 배려와 내가 먼저 앞장서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름도 ‘착한 마음’이라는 뜻의 선심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상경 “혜리만큼 선심 역할 잘할 배우 없어”



김상경

이혜리는 이번 작품에서 수수한 스타일링이 강조되는데 대해서는 “선심이 할 일이 많고 바빠 외적으로는 그다지 신경을 못 쓰는 인물 같다. 또 사회 초년생이라 어떻게 꾸미는지도 잘 모른다”며 “그래서 예능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화려한 옷도 입고 화장도 하면서 풀고 있다”고 웃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대표작 ‘응답하라 1988’ 이후 전환점을 맞은 시기인 것 같다는 말에는 “방송 보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떨렸는데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와서 감사하다.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캐릭터로 남을 수 있게 연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까칠하지만 결국 선심의 우군이 되는 유진욱 부장 역의 김상경도 혜리의 연기를 격려했다.

김상경은 “혜리가 출연한 작품을 못 봤지만, 다른 배우가 혜리만큼 선심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 정말 잘해나가고 있고, 역할이 잘 맞는 것 같다. 혜리의 ‘인생작’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칭찬했다.

그는 코미디보다는 현실의 아픔을 많이 담았던 작품 특징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판타지극이 많은데, 우리 드라마는 결이 다르다”라며 “자존감이 높아져야 행복하겠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은 정확히 봐야 한다. 우리 드라마가 현실을 자주 보여주다 보니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더 재



김상경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작품에는 20대의 젊음도, 사회 초년생도, 부장도, 사장도 있다. 모두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연출을 맡은 한동화 PD 역시 “우리 드라마는 사람 간 관계성이 나타나는 게 먼저라 전개가 조금 느리게 보일 수 있는데, 점점 감정들이 증폭될 거고 재밌는 것들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청률 3%대(닐슨코리아 유료가구)를 기록 중인 ‘청일전자 미쓰리’는 매주 수·목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 /연합뉴스



설리

“마지막, 팬들과 함께”

이틀째 연예계 추도 행렬... 외신 “보수적인 한국 속 페미니스트”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 이틀째인 15일 연예계에서는 행사 취소와 운라인 애도 등 추도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방송가는 연달아 행사 취소 소식이 전해졌다.

CJENM은 이날 오전 11시 상암동에서 열 계획이던 엠넷 예능 ‘썸바디’, 오후 2시 예정된 율리브 예능 ‘치킨로드’ 제작발표회를 취소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공개 코미디쇼 ‘박나라의 농염주의보’ 제작발표회 역시 예정대로 진행하려다 결국 취소했다. 홍보사는 “약속인 만큼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들려온 비보에 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설리와 같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의 일정 연기도 전날에 이어 계속됐다. 전날 슈퍼엠 특집쇼와 슈퍼주니어 컴백 기념 라이브 방송이 취소된 데 이어 태연 정규 2집 컴백 콘서트 공개도 연기됐다. 오는 22일 정규 앨범을 내는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데이식스 측도 “안타깝고 슬픈 소식에 가요계 후배로서 묵념으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주 예정된 관련 콘서트 공개를 잠정 중단했다.

동료 스타들은 밤을 새워가며 온라인에 추모글을 올렸다. 고인과 생전에 절친했던 가수 구하라의 전남 낮은 밤 인스타그램에 “그 세상에서 진리가 되고 싶은대로”라는 글과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세 장을 공개했다.

카라 박규도 “애브고 받았던 아이, 어떤 말로도 심정을 담기 힘든. 조금 더 모두에게 관대한 세상이 되었으면”이라고, 강지영도 “네 미소 모두가 기억할 거야”라고 애도하는 글을 남겼다.

주요 외신들이 최근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를 여성 권리를 주장한 아티스트로 평가했다.

설리는 생전 방송 활동과 소셜미디어 소통을 통해 ‘노브라’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노출하는 행위) 권리 등을 주장해 논쟁의 중심에 섰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간) “설리는 보수적인 한국 연예계에서 다소 논쟁적 인물이었다”면서 고인이 여성의 노브라 권리를 주장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 ‘시선 강간’을 하는 팬들을 비판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연예 주간지 피플은 “설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내내 자신의 페미니스트적 이상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그런 점이 보수적인 한국 사회를 사는 다른 동년배들과 구별됐다고 평했다.

빌보드도 설리를 ‘스타들이’ 조용히 있을 것을 선호하는 산업에서 말을 했던 K팝 스타’로 정의했다. 빌보드는 “그는 K팝 스타들, 특히 여성들이 대중의 큰 반발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안전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떠났다”고 밝혔다.

AP통신 역시 “설리는 매우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스트적 목소리를 내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유명한 몇 안 되는 여성 엔터테이너였다”고 보도했다.

한편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6)가 지난 14일 사망 소식이 알려진 ‘절친’ 설리를 떠올려 만든 과거 곡 ‘복숭아’가 음원차트에 재진입했다.

한편 모든 장례 절차를 비공개하기로 했던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25) 소속사와 유족 측이 팬들의 조문을 받기로 했다.

설리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5일 “유가족 뜻에 따라 늘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팬들이 따뜻한 인사를 설리에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문 장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팬 조문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에서 16일 오후 9시~10시 가능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35 KBC 모닝 730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⑨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중계방송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40 지구촌 뉴스	45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00 중계방송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⑪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동백꽃 필 무렵(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카봇 유니버스
⑫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시크릿 부티크(재)
⑬	00 KBS 네트워크 특선 다짜고짜 마을방송 50 KBS 재난방송센터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킴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⑭	00 KBS 뉴스 10 남북의 창 50 전국노래자랑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뉴스브리핑
⑮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빅스웃 50 빠샤메카DS	
⑯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	00 테마스페셜
⑰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쏠!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차종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⑱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⑲	00 KBS 뉴스 7 40 KBS 광주 청량 2019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⑳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어쩌다 발견한 하루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㉑	00 KBS 뉴스9			
㉒	00 시사토론 '10' 55 더 라이브	00 동백꽃 필 무렵	05 실화탐사대	00 시크릿 부티크
㉓	35 UHD 숨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썸바이벌 1+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㉔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극한직업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임	19:00 스파이더맨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EBS 초대석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당동당 유치원	14:45 몰랑	20:00 머털도사
08:30 띠띠뽀 띠띠뽀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중국 도읍지 전(傳) -장성이 품은 베이징 고(古)촌락>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1:30 한국기행 <추중진미, 독백기 3부 이 가을, 몸보신 하실래요?>
09:00 출동! 슈퍼왕스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50 EBS 다크프라임
09:30 원더볼츠	15:55 출동! 슈퍼왕스(재)	22:45 극한직업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3:35 EBS 초대석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사와 곱(재)	24:25 지식의 기쁨(재)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당 유치원(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퍼 피크(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6일 (음 9월 18일 丙戌) ☎ 010-9790-8237

<p>36년생 금석자간에 취한 하루가 될 것이다. 48년생 인식하느냐 못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60년생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으로써 작용하게 될 것이다. 72년생 불합리하다면 빨리 개선하자. 84년생 재물이 나타나고 있으니 수용할 준비를 하라. 96년생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04, 48</p>	<p>30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마땅하다. 42년생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54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고 조처해야 할 때다. 66년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해야 할 국면이다. 78년생 디딤돌이 될 것이다. 90년생 나올 것은 한정 되어 있는데 들어갈 곳은 넘쳐나겠다. 행운의 숫자 : 24, 94</p>
<p>37년생 높게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49년생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61년생 남설에 신경 쓰지 말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자. 73년생 정성과 솜씨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리라. 85년생 이렇듯 저렇듯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별 탈이 없다. 97년생 강이 바다에 이르는 듯한 대단원의 합류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0, 71</p>	<p>31년생 제3자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43년생 차분하게 지켜본 연후에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5년생 얼마나 오래 끌고 있는나가 아니라 얼마나 성과를 보느냐이다. 67년생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79년생 상호 교류를 위한 통로나 수단이 절실히 요청된다. 91년생 선길후흉 할 수이다. 행운의 숫자 : 57, 49</p>
<p>38년생 상대의 진정한 의중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50년생 일관하는 것이 맞다. 62년생 처음에는 어려우나 점점 쉬워질 것이다. 74년생 용동이 쉬워지면서 성사된다. 86년생 뻥차 예견하면서도 일부러 자초할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98년생 내버려둬도 다 알려지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82, 75</p>	<p>32년생 상망히 유리하다. 44년생 괜히 나갔다가는 이상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56년생 소신과 주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68년생 가벼운 언행은 공든 탑을 무너지게 한다. 80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판단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 92년생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대로만 행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0, 33</p>
<p>39년생 차원이 다른 세계이다. 51년생 대수는 없을 것이니라. 63년생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기능을 유지하리라. 75년생 신규는 절대로 아니 되니 꼼도 뒤흠리는 아니 되겠다. 87년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절실하다. 99년생 기본에 충실해야만 닥쳐오는 현안에 대비할 수다. 행운의 숫자 : 80, 46</p>	<p>33년생 희망적이나니라. 45년생 효율성을 견지하라. 57년생 타산정성의 격이다. 69년생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이다. 81년생 혼자 감당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93년생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인내로써 일관해야 할 처지이다. 행운의 숫자 : 19, 92</p>
<p>40년생 전환점을 마련할 만한 단계에 임하라. 52년생 기본적인 것이 미비한 상태라면 성과가 저하 될 수밖에 없다. 64년생 지연되었던 난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다. 76년생 소신껏 임했을 때 탄력이 붙게 되리라. 88년생 조정해야만 할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00년생 속도 보다 완성도가 요구되는 판도이다. 행운의 숫자 : 03, 32</p>	<p>34년생 뜻밖의 만남으로 인해 재물이 들어오겠다. 46년생 길경의 물결이 남실대고 있으니 곧 좋은 일이 있으리라. 58년생 수월해질 것이다. 70년생 장고해야만 내실 있는 결론에 이르리라. 82년생 복잡다단했던 일이 늦게나마 정리 될 소지가 있다. 94년생 참예한 논란에 휩싸일 수다. 행운의 숫자 : 61, 57</p>
<p>41년생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시켜 보자. 53년생 생 완전히 있고 있었던 과거사가 문제점을 야기 하겠다. 65년생 썩 먹고 알 먹는 일이 보인다. 77년생 만남은 있으나 탐색전에 불과한 구도이나니라. 89년생 공상에 사로잡히면 망신 살이 뻥뻥다. 01년생 일상에 충실하다보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6, 60</p>	<p>35년생 근본적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게 될 것이니라. 47년생 모두 차지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다. 59년생 위기관리 능력이 요망된다. 71년생 발상이 참신하다면 결과의 차이는 클 것이다. 83년생 동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95년생 찬전에 기빠하지 말고 뼈아픈 충고에 귀 기울여라. 행운의 숫자 : 20, 63</p>